

12율명과 정간보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28~29쪽
제재명	율명과 정간보	지도서	68~69쪽

1. 12율명

우리나라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의 이름이다. 정간보에 쓸 때는 율명에서 黃, 大, 太 등 그 첫 자만 쓴다.

黃鍾	大呂	太簇	夾鍾	姑洗	仲呂	蕤賓	林鍾	夷則	南呂	無射	應鍾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척	남려	무역	응종

기준이 되는 음을 ‘중성’이라고 한다. 이 중성보다 한 옥타브 높은음을 ‘청성’, 중성보다 한 옥타브 낮은음을 ‘배성’이라고 한다. 청성은 중성에 삼수변(𪛗)을 붙이고, 배성은 중성에 사삼인변(亻)을 붙인다. 두 옥타브 위의 음은 삼수변 두 개(𪛗𪛗)를 붙이고 ‘중청성’이라고 한다.

중청성 (두 옥타브 높은음)	𪛗𪛗	𪛗𪛗	𪛗𪛗	𪛗𪛗	𪛗𪛗	𪛗𪛗	𪛗𪛗	𪛗𪛗	𪛗𪛗	𪛗𪛗	𪛗𪛗	𪛗𪛗
청성 (한 옥타브 높은음)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𪛗
중성 (중앙의 중심음)	黃	大	太	夾	姑	仲	蕤	林	夷	南	無	應
배성 (한 옥타브 낮은음)	亻	亻	亻	亻	亻	亻	亻	亻	亻	亻	亻	亻

또한 같은 율명으로 기보된 악보라도 악기 편성에 따라 그 음의 높이가 다르다. 당피리 또는 편종과 편경이 중심이 되는 음악의 황종은 ‘C’ 음에 가깝고, 거문고 또는 향피리 등이 중심이 되는 음악의 황종은 ‘E’ 음에 가깝다. 당피리 또는 편종과 편경이 중심이 되는 음악에서는 음높이가 잘 변하지 않는 편경의 음을 기준으로 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줄풍류, 삼현 육각 등의 경우 황종이 ‘E’ 음에 가까운데 이 경우 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장사훈 “최신 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91, 38~44쪽.

2. 세종

세종(재위 1418~1450)은 재위 시절 조선이 갖추어야 할 여러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음악 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음의 시가를 표기할 수 있는 정간보(井間譜)의 창안, 편경의 국산화 과업 성취, 아악 정리, 악서 찬정, ‘여민락(與民樂)’, ‘보태평(保太平)’, ‘정대업(定大業)’과 같은 음악 제정의 업적 등이 그의 통치 시기에 이루어졌다.

3. 정간보

정간보는 음의 높이뿐 아니라 각 음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동양 최초의 기보법이다. 조선 세종 때 창안되어 “세종실록” 악보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여러 악보에 활용되었고, 오늘날에도 전통 음악의 대표적인 기보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간(間)을 나눈 정간에 음을 기록해 넣은 악보로서 시가를 켤 수 있는 편리한 악보이다. 전체 32간(間)을 한 행으로 하여 질러 놓고 한 행에는 黃, 大, 太와 같은 율명(律名)의 첫 글자만으로 선율을 나타내는데, 한 칸이 한 박이 되어 음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다. 다른 행에는 장구의 장단, 박, 악기의 선율, 노랫말 등을 함께 적어 넣어 여러 악기의 악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했다. 정간보는 전통 음악을 보존하는 데에 꼭 필요한 악보이고, 한국 음악의 멋을 간직하기 위해 지켜 나가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출처 국립국악원 누리집 > 국악 사전

단소 연주 자세와 주법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34~35쪽
제재명	단소 오름길 ❶	지도서	74~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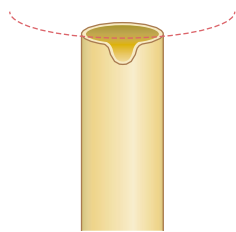
1. 단소

단소는 향악기화한 통소의 작은 형태이다. “악학궤범”을 비롯하여 그 이후의 문헌에도 단소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단소는 조선 왕조 말엽에 속하는 악기임을 알 수 있다. 그 음색이 청아하여 독주 악기로서 애용되고, 주로 실내악적인 줄풍류 등에 편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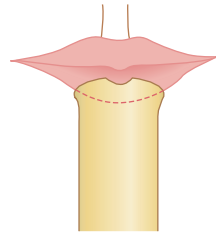
출처 장사훈, “최신 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91, 222~223쪽.

2. 단소의 연주 자세와 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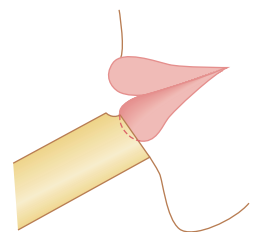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은 후 머리를 조금 숙이고 두 팔은 허리에서 약 10cm 정도 들어 둥글게 만든다. 입은 ‘휘’를 작게 발음하며 취구에 바람을 불어 넣는다. 이때 위아래 입술은 너무 느슨하지 않게 양쪽으로 당겨 주고 입 모양은 아래를 참고한다.



▲ 아랫입술이 닿는 부분



▲ 단소가 입에 닿은 정면 모습



▲ 단소가 입에 닿은 측면 모습

3. 단소 전체 운지법

Diagram illustrating the fingering and breath control for the Dano instrument. The notation shows a scale from G4 to G5. The fingering diagrams show the positions of the fingers (right hand: 1st, 2nd, 3rd, 4th, 5th; left hand: 1st, 2nd, 3rd, 4th, 5th) for each note. The breath control instructions are: 仲 중 (편안한 호흡으로 분다.), 林 임 (조금 세게 분다.), 南 남 (세게 분다.), 無 무 (편안한 호흡으로 분다.), 潢 황 (조금 세게 분다.), 汰 태 (세게 분다.), 洵 중 (편안한 호흡으로 분다.), 淋 임 (조금 세게 분다.), 湍 남 (세게 분다.), 漁 무 (편안한 호흡으로 분다.), 潢 중 (편안한 호흡으로 분다.), 汰 중 (조금 세게 분다.), 洵 중 (세게 분다.).

출처 김기수, “단소율보”, 은하출판사, 2013, 13~15쪽.

단소 오름길 ❶ 연습곡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34~35쪽
제재명	단소 오름길 ❶	지도서	74~75쪽

■ 소금 장수 1

橫	청황	仲	중	橫	청황	橫	청황	無	무	橫	청황	仲	중	林	임
無	무			無	무			汰	청태			林	임		
林	임			林	임	橫	청황	汰	청태	橫	청황	無	무		
無	무	林	임	林	임			汰	청태			無	무		
		無	무			橫	청황			橫	청황			林	임
		無	무			橫	청황			橫	청황			林	임
△				△				△				△			
		汰	청태			汰	청태								

소금 장수 1

황청원 작사 - 조광재 작곡
자진모리장단

* 단소 오름길 ❶ 단계에 맞는 악보의 일부분만 수록하였으며 참고 자료 147~148쪽에 ‘소금 장수’의 뒷부분 악보가 단계에 맞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음악극의 종류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38~39쪽
제재명	다양한 음악극	지도서	78~79쪽

1. 오페라

오페라는 문학과 음악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기, 무용, 의상, 디자인, 미술, 조각 등 다양한 예술들이 참여하고 있기에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16세기 말 피렌체(플로렌스)에서 휴머니스트인 시인, 음악가, 학자들의 모임 ‘카메라타(Camerata)’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독창과 중창, 합창을 포함한 아리아와 단선율의 노래 형태를 보이는 ‘레치타티보(recitativo)’ 등으로 구성된다. 유명한 작품으로는 모차르트의 “요술피리”, 푸치니의 “라 보엠”,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베르디의 “아이다”, 글루크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등이 있다.

출처 반덕진 편저,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계축문화사, 2014, 15~20쪽.

• 오페라 “요술피리”

“요술피리”는 이탈리아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서민들을 위해 모차르트에 의해 독일어로 쓰인 징슈필(독일어로 서로 주고받는 대사에 서정적인 노래가 곁들여진 민속적인 오페라)이다. 타미노 왕자가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밤의 여왕의 시녀들을 만나 여왕의 부탁으로 요술피리를 받아들이고 여왕의 딸인 공주를 구하러 새잡이 수행원 파파게노와 함께 길을 떠난다. 막상 가보니 자라스트로는 악당이 아니라 공주를 구출하여 보호하고 있는 현인이고, 밤의 여왕이 악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왕자는 새로운 세계의 일원이 되기 위해 침묵 수행을 하고, 나중에는 공주와 함께 물과 불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출처 반덕진 편저,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계축문화사, 2014, 142~143쪽.

2. 뮤지컬

뮤지컬은 음악, 춤, 연기가 어우러진 공연 양식으로 음악 중 특히 노래가 중심이 되어 춤과 극적 요소가 조화를 이룬 종합 공연물이다. 이야기가 연극으로 진행되면서 극의 중간 중간에 나오는 노래와 춤으로 인물들의 감정과 극의 내용을 나타내며 노래와 춤이 끝나면 다시 연극이 펼쳐지는 식으로 진행된다. 19세기 말 영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대중오락 범주의 공연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20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발달하였고, 코믹함이 가미된 뮤지컬 코미디와 드라마적 요소가 강조된 뮤지컬 플레이 등의 통칭으로 쓰이다가 점차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공연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출처 박용재, “뮤지컬 감상법”, 대원사, 1997. 신혜련, “오페라와 뮤지컬”, 일송미디어, 2014.

• 뮤지컬 “캣츠”

T.S. 엘리엇의 시,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기반으로,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작곡하여 1981년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초연하였고 1982년에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뮤지컬이다. 세계에서 흥행에 가장 성공한 뮤지컬 중 하나로, 명곡 ‘Memory’를 포함한 아름다운 음악과 환상적인 무대로 토니상 7개 부문 수상을 비롯하여 전 세계 우수 뮤지컬 상을 휩쓸었다. “캣츠”에 등장하는 각양각색의 고양이들은 모두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새로 태어날 고양이로 선택되기 위해 그들이 풀어놓는 다양한 이야기에는 삶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출처 Andrew Lloyd Webber, “Cats(Original Broadway Cast) OST”, 유니버설 뮤직, 2017.

3. 경극

19세기 중엽 북경(베이징)에서 만들어진 대중적인 중국 연극의 형태로, 등장인물 각각의 몸놀림은 전통적인 걸음·자세·팔놀림 등이 도식화된 것이다. 격렬한 연기에는 곡예적인 몸놀림이 자주 사용된다. 반주는 현악기, 관악기, 나무로 된 타악기, 작은북 등으로 편성된 소규모 악단이 맡게 된다. 특별히 긴 공연의 경우 막간에 하는 해설은 가수들이 사이사이 설 수 있게 해 준다.



‘북경에서 행해진 연극’을 의미하며 기원은 확실치 않지만, 1790년 건륭제의 8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의 극단이 북경에 들어와 새로운 형태의 극을 공연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경극은 초패왕과 우희, 제갈공명,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등 중국 역사를 수놓은 역사적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인생의 보편성을 노래하며, 4대 행당이라고 불리는 배우들이 주축이 된다. 전통적으로 하나의 배역을 평생 연기하는 배우로 남자 역할을 하는 생(生), 여자 역할을 하는 단(旦), 군인·무뢰배·정치가·신(神) 역할을 하는 정(淨), 우스갯소리를 하며 공연에 활기를 불어넣는 어릿광대 역할을 하는 축(丑)이다. 인물의 성격이나 선악 구도는 배우들의 분장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출처 홍문숙·홍정숙, “중국사를 움직인 100인”, 청아출판사, 2011, 116~117쪽.

• 경극 “패왕별희”

“패왕별희”는 초한의 전쟁을 배경으로 초의 패왕 항우와 우희의 이별을 그린 작품으로 중국 소설 ‘서한연의’에 의거하였다. 이 경극은 1918년 “초한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초연되었다. 항우는 우희와 여러 장군의 간언을 물리치고 한군에서 투항해 온 이좌거의 권고로 출병하지만, 이것은 한의 군사 한신의 모략이었다. 유인된 항우의 초군은 북병에 의하여 포위되어 사면에서 초가를 듣는다. 항우가 “초나라는 이미 망한 것인가.”라고 자신의 말을 어루만지며 불안해하자 우희는 항우를 위로하며 칼을 들고 춤추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혼자 탈출한 항우도 오강에서 자결한다.

출처 두산백과

4. 가부키

가부키는 16세기 후반 여승이었던 오쿠니가 불교도들을 풍자한 형식에서 비롯되었다. 음악과 춤, 무언극, 호화로운 무대와 의상이 혼연일체로 어우러져 있는 연극으로, 글자 자체로는 ‘노래’(歌), ‘춤’(舞), ‘숨씨’(伎)를 뜻한다. 가부키의 본래 목적은 관객을 즐겁게 하고 배우들이 숨씨를 마음껏 펼치도록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권선징악으로 대표되는 교훈적 요소도 들어 있다.



• 가부키 “추신구라”

이 작품은 1702년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으로, 주군을 잃은 47명의 사무라이가 1년 동안 와신상담한 끝에 자신들의 주군을 자살로 몰고 간 사람에게 복수를 감행한 역사적 사건을 내용으로 한다. 47명의 사무라이 이야기는 당시 에도 시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이끌었고, 실제로 막부 관료조차도 그들의 의리를 칭찬하며 구명을 주장했을 정도로 여파가 대단했다.

출처 정혜선, “일본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2011, 263쪽.

마고할미 설화

단원명	2. 느낌을 담아	교과서	42~43쪽
제재명	마고할미	지도서	82~83쪽

■ 마고할미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창세 신화 이야기 중 하나로, 육지에서는 주로 ‘마고할미’나 ‘노고할미’, 제주에서는 ‘설문대할망’이라고 불린다. 세상 모든 것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 신의 다른 이름을 뜻한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 속의 ‘가이아’, 중국 신화 속 ‘여와’, 이집트 신화 속 ‘누트 신’과 비슷한 의미이다.

출처 정근, “마고할미”, 보림출판사, 2006.

1. 설화 내용

거인 여신 마고할미가 치마폭에 싸서 나르던 흙이 산 또는 섬이 되었다. 그리고 마고할미의 똥이나 오줌으로 산이나 하천이 생겨나기도 했다. 마을의 큰 돌은 마고할미가 손이나 채찍으로 굴리다가 던져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이다. 마고할미는 구만 필의 마포(麻布)로 옷을 지어도 몸을 다 감싸지 못할 정도로 몸집이 컸다. 키는 또 얼마나 컸던지 완도 일대의 바다를 걸어서 다녔고, 그곳 해안의 선바위에 발을 딛고 오십이 고개에 손을 딛고 용듬병의 물을 마셨을 정도였다. 힘도 엄청나서 양주의 노고산과 불국산에 두 다리를 걸치고 오줌을 누자 문학재 고개에 있는 큰 바위가 깨져 나갔다고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8.)

2. 지역 사례

마고할미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당이 따로 존재하는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마고할미의 지역적 변이형으로 파악되는 개양할미가 전북 부안군의 수성당에서 어민들의 수호신으로 여덟 딸과 함께 모셔지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당개 포구의 해신당에서 당신으로 섬겨지고, 일부 ‘산신굿’의 무가에 설문대할망에 대한 사설을 담고 있어 지역 신앙민들에게 신앙시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 편”, 국립민속박물관, 2009.